

Atucha-1호기는 1987년 9월후에도 세번이나 정지했다. 관측통들은 CNEA가 아직도 Atucha-1호기 문제의 범위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멕시코

### 最初原電에 核燃料裝填 開始

멕시코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Laguna Verde 1호기(BWR, 68만kW)에 대한 핵연료 장전이 10월 21일 시작되었다. 앞으로 약 6개월에 걸쳐 각종 시험을 실시한후 상업운전개시는 내년 5월쯤으로 예정되어 있다.

同機는 1973년에 건설을 개시했으나 경제위기 등으로 건설작업이 지연되어 이번에 겨우 핵연료 장전단계에 이르른 것이다. 건설코스트도 당초의 예산보다 대폭 증가하여 30억\$을 초과할 전망이며, 2호기는 현재 건설중이다.

멕시코정부 당국자는 핵연료의 장전에 대해 동국 기술의 우수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동 발전소의 운전은 멕시코의 新에너지源으로서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글라데시

### 原子力委員會 委員長 職務遺棄로 懲戒

방글라데시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Husain씨는 지난번 비엔나에서 열린 IAEA 연차총회 마지막 날에 실시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보고에 따라 직무유기를 이유로 정부로 부터 정직조치되었다. Husain씨는

방글라데시의 지도적인 핵과학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Husain씨가 큰 차로 이스라엘의 원자력활동을 부결시킨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우호적인 아랍제국 사이에서 방글라데시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는 서방과 아랍 국가들로 부터 원자력 평화 이용분야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 필리핀

### PNPP-1問題, 美法院에 提訴

필리핀정부는 Westinghouse사와 Burns & Roe사가 필리핀 원전 1호기(PNPP-1) 문제의 「공정한」 해결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12월 1일 양사를 미국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사위원회의 변호사들이 밝혔다. 이 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0월 10억~2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시사한바 있다.

아키노대통령과 11월초에 만났던 이 위원회 위원들과 미국 법률고문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필리핀정부가 이 두 회사에 이미 지불한 모든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NSSS 공급자인 WH사와 A/E사인 B & R사를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제소는 축출당한 전 마르코스대통령과 그의 동료인 Disini씨에게 불법 제공한 돈을 비롯해 양사의 부정한 거래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소송의 초점은 소장에 따르면 이 두회사가 마르코스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제공함으로써 이 계약을 수주해 하자가 많은 발전소를 설계, 건설했다는 것」이라고 미국 법률고문 Augenblick씨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러나 그는 마르코스씨와 Disiri씨는 모두 복잡한 법률적인 이유때문에 피고로 지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